

저출생·청년층 유출...광주 인구 140만명도 위태롭다

광주 인구가 140만명 유지도 위태로운 상황에 접어들었다. 특히 2019년부터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른바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엔 140만 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광주지역 주민등록인구는 141만1천357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141만9천237명보다 7천880명 감소한 수치다.

광주 인구는 2014년 147만5천884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세가 뚜렷하다.

최근 10년간 광주 인구는 2014년 147만5천884명, 2015년 147만2천199명, 2016년 146만9천214명, 2017년 146만3천770명, 2018년 145만9천336명, 2019년 145만6천468명, 2020년 145만62명, 2021년 144만1천611명, 2022년 143만1천50명 등으로 2023년까지 5만6천647명이 감소했다.

연평균 감소 인구는 5천660여명에 달한다.

특히 문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평균 3천236명이 줄어든 반면, 2019년 이후부터 인구 감소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9천300여명이 줄었다. 2022년, 2023년 2년 동안에만 2만2천374명이 빠져 나갔다.

광주 인구 감소 주 연령층은 0-49세였고 25-29세에서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간 0-49세 연령대별 감소 추이는 0-4세 3만1천144명, 5-9세 1만4천233명, 10-14세 1만9천74명, 15-19세 4만1천720명, 20-24세 1만8천826명, 30-34세 2만2천307명, 35-39세 3만1천438명, 40-44세 1만9천686명, 45-49세 1만3천145명 등이다. 25-29세는 1만2천191명 늘었다.



9월말 기준 141만1천357명 9개월 새 7천880명 '뚝'
2014년 147만5천884명 정점 이후 감소 속도 빨라져
지난해 1만1천여명 급감...20-39세 6천236명 타지로

50세 이상에선 100세 이상을 뺀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가 늘어 고령화가 뚜렷했다.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광주 인구 최대치를 기록한 해는 2014년이었으며

실제 150만명을 넘어선 적은 없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다만,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통계에서 사용하는 '총인구'에서 2015년 150만2천881명(내국인 148만1천289명·외국인 2만1천592명)을 기록한 적은 있다.

1986년 전남도에서 분리됐던 광주시(당시 광주직할시)의 인구는 92만8천851명(상주인구조사)이었다. 이후 2002년 139만7천452명에서 2008년 139만5천762명으로 1천600명 줄어든 것을 빼곤 2014년까지 매년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141만8천241명에서 9월 141만1천357명으로 월 평균 764.88명이 유출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른바 11월 141만명대가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이르면 2025년 후반, 늦어도 2026년에는 140만명

대 마저 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 인구 감소 가속화 배경에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자연 감소와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사회 감소가 맞물렸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2023년 기준 사회감소(전입자수-전출자수)는 9천17명으로 자연 감소(출생아수-사망자수) 2천81명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사회 감소(순유출) 인구 중 청년층인 20-39세에서 6천236명이나 집중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 유출지는 서울, 경기, 충남 순으로 나타나 지역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유출이 두드러진다"며 "인구 감소는 어느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닌 정주 여건·교육·즐거움 등 생활 전반에 관련된 현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여서 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

전라선 고속화철도 첫 단추 꿰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선정...2조 투입 설계속도 250km/h
여수-용산간 2시간30분...대규모 SOC 기틀 또 마련

전라선 고속화 철도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전남도는 31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 제7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전라선(익산-여수) 고속화 철도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화 철도사업은 전북 익산에서 여수까지 179.4km 구간의 철도를 설계속도 250km/h로 고속화하는 프로젝트다. 약 2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고속화가 마무리되면 여수에서 용산까지 소요 시간이 2시간30분 이내로 단축된다.

당초 사업비 대비 효과가 적다는 의견이 있어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김영록 전남지사가 직접 사업 필요성을 어필하는 등 끼여가는 불씨를 살려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이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됐다. 2025년 10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거쳐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기존 전라선을 고속주행이 가능하도록 굴곡, 급커브 등 선로를 개량하고 고속화 철도망을 구축하면 용산에서 여수



시 차단 긴급 방역 최근 강원 동해시의 한 산간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가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1일 오전 광주 북구청 동물정책팀 직원들이 기러기와 비오리, 청둥오리 등이 울동하는 관내 신용동 등 영산강 철새 도래지 일원에서 긴급 방역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까지 현재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구간을 2시간30분 이내로 30분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선정됨에 따라 전남·전북지역 철도 인프라 개선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게 됐다. 또한 고속화된 철도망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탄소 배출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전남 동부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다양한 경제·사회적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그동안 전라선 예비타당성 신청을 철회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도민의 뜻을 모아 시작한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전남·전북지역 교

통 편의를 크게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국토교통부, 해당 시·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빠른 시일에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Today

세계 최초 '섬박람회' 이목집중	9면
박계영의 몸에 좋은 제철음식	14면
광주FC, 대전 잡고 잔류군헌다	16면

이 작품은 국민 박선주, 박해원, 이소연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페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는 24.9.현재 아래 45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아래 목록을 참고하세요.

총 45개 지자체: 세종시·서울시(25개 지자체)·나주시·광주광역시·임실군·순창군·동해시·삼척시·광주동구·부산연제구·예산군·거제시·거창군·양산시·하동군·하남시·태백시·무주군·예천군·음성군·춘천시

* 연도별 협약 체결 순

우편

받는 사람, 우표 없어도 가는 유일한 편지?

받은 약을 편지봉투에 담아
페의약품, 단 네 글자만 적어 **우체통**에 넣으세요.
편지 한 통으로 나와 지구의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우정사업본부

페의약품 폐기, 이제 주민센터나 약국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QR을 찍고 페이지에 접속하면
내 주변 우체통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